

며 舟遊하는 人物들이 갖는 衣冠 動態의 簡古한 表現은 謙齋의 다른 作品에서도 볼 수가 있다.

右 上에는 「竹西樓, 謙齋」라 墨書하고 그 밑에 「鄭敦」(陰文) 方印 一顆가 찍혀 있다.

樓에는 四方의 외벽도리를 直接 받고 있는 오늘날의 隅柱가 안 보이는 한편 마루 아래 기둥사이에는 지금은 볼 수 없는 板壁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점은 向左의 建物로 짐작되는 燕謹堂의 存在와 함께 이 建物과 그 周邊의 變貌, 變遷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邑誌에는 或 모르겠으나 輿地勝覽의 竹西樓에 對한 說明은 매우 簡略한데 所在가 客館의 西편이라는 것 以外에는 아무 具體的인 說明이 없다. 그러나 燕謹堂에 대한 記述은 잘치 않으며 「燕謹堂在竹西樓榜」이라 한 것이라든가 「竹西樓之別館也」라 있는 것으로 미루어 向左의 작지 않은 建物이 그것이라고 推定해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金守溫記 燕謹堂者 三陟府竹西樓之別館也 故府閔紹生所創也 歲癸亥也 屋七間也 多則溫而夏則涼也 大小客之所安處也 火于辛卯後九月也 改于明春 增八間也 十月之交乃落成也——中略——厥初監督者 戶之長金生麗也 金得江也 又金珪等數十人也——中略——是成化八年冬至後七日也」라 說明하고 있는데 西紀一四七三年에 該當하는 落成年인 成化八年(成宗三年)에서 遡及하면 閔紹生이 創建한 癸亥는 世宗二五年(一四四二)이 되며 消失한 辛卯는 成宗二年(一四七二)이 된다.

그러나 이 畫面의 왼편 建物로 짐작되는 燕謹堂은 肅宗——英祖年間의 謙齋(一六七六——一七五九)가 그린 것인만큼 成宗三年에 改建된 그대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는 疑心스럽다. 輿地勝覽이 引用한 金守溫의 手記는 그가 世宗二〇年에 進士가 된 사람인 만큼 그 후의 創建이나 改建의 年代가 自然스럽게 들어맞고 있다.

竹西樓에 대한 說明이 燕謹堂보다 훨씬 取할 바 없이 된 原因은 確實히 알 수 없으나 二百餘年前의 寫生圖를 對하니 거기에 대한 疑問과 不滿을 禁할 수가 없다.

向 右 편의 亭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더욱 알 수가 없으나 燕謹堂으로

짐작되는 왼편 建物로부터의 自然石階가 끝나는 데서 水面으로 直立한 「사다리」와 樓의 兩便에 선 巨樹(現狀과 酷似) 등은 興味를 끈다. 縱橫 二〇・三×三三cm의 絹本에 淡彩한 小幅인데 오히려 竹西樓의 構造나 燕謹堂의 沿革이 注意된다. (李謙魯氏藏)

漆谷 仁同磨崖佛

尹 容 鎮

漆谷郡 仁同邑에서 海平쪽으로 數百米 가면 石峴이라는 고개가 있고 이 南쪽 約百米地點의 東向傾斜地중턱에 高 八m의 花崗岩質의 大岩塊가 突出하여 이 岩壁에 立佛을 浮彫하였는데 지난 二月 五日 鄭明鎬氏와 함께 調査한 바 있기에 간단히 紹介하는 바이다.

이 磨崖佛은 正東向한 立佛로 白豪가 없는 頭上에는 平扁方形의 寶蓋를 얹었고 足下는 六葉의 蓮瓣이 새겨진 圓形座臺를 具存하였다. 座臺와 寶蓋를 除外한 立像全高는 七・一五m이다. 剃髮・長耳 鬚은 眼窩에 다 새긴 細眼, 넓고 낮은 肉髻, 가법계 다문 입, 굵고 짧은 목에 새겨진 三道, 厚肉하게 새겨진 胸部와 肩部等 잘 整齊된 그 모습은 新羅佛에서 흔히 보는 特徵과 相通한다. 손은 表面이 조금 磨滅되어 分明치 않으나 兩手를 가슴에 얹었고 왼손은 外掌하여 손금이 두 줄 보인다. 拇指와 無名指를 가법계 대었고 그外三指는 위로 뻗



했으며 오른손은 같은 手相이나 內掌하고 있어서 說法印을 나타낸 듯하다. 腰部以下는 上半身에 比해 彫刻을 疎忽히 한 感을 준다. 足部는 발끝이 左右로 向하게 하였고 座臺는 繪畫式으로 線으로서 足部를 가운데 두어 橢圓形으로 넓게 陽刻했으며 그 밑 前面에 蓮瓣六葉을 陰刻하였고 가운데 것이 크며 側面으로 갈 수록 작아진다. 가운데 蓮瓣의 高는 五 cm이다.

法衣는 通肩이며 양팔을 걸쳐 걸쳐 발등까지 내려졌다. 袈裟의 紋은 脚部에서 U字로 새겨져 있으며 全體의 紋은 窄은 옷으로 몸을 감아肉體의 表現을 強調한 듯하다. 寶蓋가 製作當時부터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肉髻一部와 上部及 側岩이 破損되어 確實치는 않으나 全體의 均衡으로 보아 製作當時의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製作年代는 新羅技法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羅末로 推定된다.

仁同에는 以外에도 考古學的 遺蹟으로서 百餘基의 大小古墳과 洛東江을 따라 石積面으로 오는 道路邊에 支石墓數十基와 四基의 立石 등이 散在한다. 磨崖佛에 있는 石峴에는 李朝時代의 烽燧臺와 大院君斥和碑가 現存한다.

資料

◎ 貞元二〇年銘銅鍾分析

國立博物館에서는 昨年十二月 元襄陽禪林院 銅鐘破片의 分析을 國立工業研究所에 依頼하였던 바 그 成分은 다음과 같이 判明되었다.

- 銅 八〇・一%
- 錫 十一・二%
- 亞鉛 二・一八%
- 硫黃 〇・一四%
- 鐵・磷은 無

◎ 雲門寺圓應國師碑의 追刻銘 洪思俊

慶北道 清道郡 雲門面 新院洞 一七八九番地 所在 雲門寺 境內에 있는 圓應國師碑(寶物 第三一六號)는 木造側柱에 依해서 碑閣內에 存置하였던 바 客年 十二月中에 倒壞된 碑閣과 아울러 木造側柱를 鐵柱로 代替修理한 바 있다. 이 木柱를 除去할에서 碑前面周緣에는 寶相華文이 陽刻된 것을 알았으며 碑左側(向)下部에 左記와 같은 銘文이 있다. 銘文에 丙午年은 木造側柱를 建立한 當時의 銘文으로 推定되는데 一九〇六年 李太王一〇年丙午로 認定된다. 參考로 碑尺數를 記錄하여 後考에 資한다.

△此碑尺許傾危將墜丙午年 宗鈍得住此寺來見即生善 △暫時扶起正立施行

◎ 江華 傳燈寺 青銅佛坐像 (李浩官)

京畿道地區 第一次 指定文化財 實態調査時 江華島 傳燈寺에 들릴 機會가 있어 이곳에서 林泉氏가 一九六二年 六月中 旬頃 傳燈寺 大雄寶殿 實測時에 大雄寶殿東側大樑의 天障上에서 發見한 螺髮의 結跏趺座한 아담한 青銅佛像을 다시 調査하였다. 現住持 鄭紀鳳氏의 말에 依하면 이 佛像是 天障上대들보에서 南쪽을 向하고 있었다 하며 이보다 約四十五年前(西紀一九一六, 大正五年) 修理時에 修理工들에 의하여 發見되었었으나 當時의 住持였던 李보인氏가 이 事實을 傳하지 못하 고 死去한 까닭에 至國師 碑에 전해 알려지지 않았다 한다. 修理當時 人夫들에

